

WTO 시대 ;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나아갈 길

이 성 훈
현대종합상사
기획실



WTO는 반덤핑의 소멸시효를 명문화하고 반덤핑 제재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출여건을 호전시키고 장기적이며 예측가능한 수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지만 우회덤핑 조항 신설로 현재 투자를 제약하고 덤핑제소를 남발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을 남겨 둬으로써 우리의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1993년 말 이후 지난 7여년간 지속되어 온 우르과이라운드가 최종타결 되고 19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각국이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세계 교역질서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볼 때 적어도 1995년 하반기에는 이와같은 협정의 발효로 세계 무역기구 체제하의 Post UR시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994년은 각국이 관련규정에 대한 대내외적 정비를 활발하게 진행, 새로운 교역질서 정착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돈과 신질서 창조의 시기에 세계화를 모토로 선진국으로 본격 진입하고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노동집약적 공해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 클린 산업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임과 아울러 세계 무대에서의 당당한 주역으로 발돋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자산업의 동향

국내 산업의 경우, 부문별로 협상결과 및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그 파급효과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간 역학구조 변경이 예상되는 데다 교역형태, 기술수준 및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산업구도의 재편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전자산업의 위상을 살펴 본다면 우선 국내 수출 1위 산업으로써 컴퓨터, 반도체, 멀티미디어 등 첨단 정보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현재 북미, 유럽 등을 무대로 활발한 수출활동을 벌이고 있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규시장 개척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엔화강세, 우리 기술력 향상 및 인지도 증가에 힘입어 다분히 유리한 국면에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맞아 들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용이하지만은 안듯이 최근 우리나라 전자 산업에 대한 경쟁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우선 우리의 수출무대인 유럽시장에서의 여러가지 무역장벽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산 텔레비전 및 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등이 최고 32%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 기업들의 대 유럽시장 수출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론도 대두되고 있다.

WTO타결 부문별 전자산업에 대한 평가

이러한 시점에서 볼때 WTO타결 부문에 있어서 우리 전자산업이 당면한 취약점과 강점 등을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 봄으로써 그에따른 적절한 대안을 찾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먼저 무역장벽으로써 늘 각국의 갈등 요인이 되었던 관세 부문을 살펴보면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그리고 가전, 부품, 반도체 등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우선 관세 인하 및 무세화로 고관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 개도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핵심 부품의 수입관세를

저하로 생산 원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 등은 우리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컴퓨터의 무세화에 따라 외국산 완제품 및 중간재의 저가공세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증가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둔화됨으로써 기술자립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간과 할 수 없을 것 같다.

세계가 한가죽처럼 되어 정보공유의 범위가 넓어지고 확산 속도 또한 급격히 빨라진 시기에 있어서 컴퓨터 및 그밖의 전자통신 기기들은 우리생활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럴때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제품들과의 무한경쟁체제로의 돌입은 상당히 도전적인 일인 동시에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두번째로 우리 전자 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덤핑 문제를 살펴보면, 이것은 특히 칼라 텔레비전, VCR 등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의 제품에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다.

WTO는 반덤핑의 소멸시효를 명문화하고 반덤핑 제재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출여건을 호전시키고 장기적이며 예측가능한 수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지만 우회덤핑 조항 신설로 현재 투자를 제약하고 덤핑제소를 남발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을 남겨 둬으로써 우리의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 낮은 수출가격으

로 저가시장을 주 마케팅 대상으로 해왔던 우리 가전산업이 이제 기술력과 이미지 쇄신을 앞세운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다.

그밖에 보조금 철폐, 선진국의 상계조치 남용 제한 등으로 내수 및 수출환경의 일부가 개선되고 선진국의 자의적인 각종 기술표준, 인증, 검사기준의 명료화로 수출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업지원제도의 약화로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나 수입제품에 대한 국내 제품의 대응력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규정 강화 측면에서 보면 무역상대국의 자의적 원산지 규정 역제를 통한 규정의 명료화, 예측가능성 제고로 수출 및 현지 진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수입규제 법률로써도 보호받았던 국내 산업 역시 홀로서야할 시기가 온 것이다.

유통시장 개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농산물, 자동차 등 각종 생활 필수품이 외국 메이커들에게 잠식당할 위협에 처해 있고 전자산업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제조 및 유통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유통시장 개방은 그동안 패쇄되었던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아울러 우리의 유통 기술 수준도



개방화 세계화에 걸맞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산업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보완하여 국산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핵심 첨단 제품개발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 국들과의 산업기술협력강화, 체계적인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계몽 및 인문, 사회, 과학 등 전반적인 수준향상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을 통해 한층 향상 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WTO 체제하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로열티 지불비용 증가 및 기술개발 비용 증가 등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 외국 기업이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직접 공략하고 나설 때에는 전자 업계 전체의 내수 시장 수호 노력이 요청 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 기간산업에서의 조달시장이 개방되는 시점에서 선진국에 의한 국가 기간 산업 잠식이라는 근본적인 약점을 안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응방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WTO 체제하의 세계 교역 질서 속에서는 약점과 장점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업계 전반 및 개별 기업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면 이것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활용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호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의 제거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동남아 및 중남미 개도국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규제 완화 및 지원 축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자립 및 국산화 정도를 제고 시키고 국내 특성에 적합한 제품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업계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전담 부서 및 전문 인력의 활용을 통해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 수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인력향상 및 정보화 촉진 등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이미지가 고급화 작업을 통하여 기업의 경제성 확립과 자기제품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개방화 세계화에 걸맞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산업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보완하여 국산품의 국제 경쟁

력 제고 및 핵심 첨단 제품개발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세계 주요 국들과의 산업 기술협력강화, 체계적인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계몽 및 인문, 사회, 과학 등 전반적인 수준향상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가 확보한 새로운 공간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가와 국경의 의미가 무색케 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 생활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경제의 사통팔달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 또는 창의적인 소집단의 활동이 경제 활동의 핵심 추진세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별집단 활동의 총화가 곧 우리경제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국제 경제 질서를 맞이하는 우리 기업은 특히나 이 시대 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전자 산업의 주역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른 경쟁 상대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정신적이고 기술적인 성숙과 자립을 이루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